

‘문화와 예술’이 있는 한성로타리클럽, ‘즐거운 주회, 봉사’로 변화하다!

3650지구 최대 112명 회원 보유, 최고의 클럽 지향



글. 한성RC 회장 손미선



한성로타리 클럽은 총 112명 (일반 회원 89명, 한성 위너스로타리 위성클럽 23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3650지구의 최고의 클럽’이다.

금년 5월 11일에 창단한 한성 위너스 위성클럽은 벤처기업대표, 교수, 변호사, 교육사업자, 기자, 병리학자, 음악가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젊은이들로 구성된 당찬 로타리안들이다.

여기엔 우리클럽의 회원자제들도 6명 들어가 있는데 이순동 총재님의 올해 “Family Together” 슬로건에 부응하는 일이어서 더욱 뿌듯하다.

위성클럽은 회원 간의 교류와 친목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 우의와 친교를 나누고 있다. 주회 첫 모임 때는 연기영 전회장과 내가 가서 주회진행 방법을 알려주고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었더니 이제는 스스로도 의장과 총무의 주도아래 자유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이렇듯 100여명이 넘는 회원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여 회원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할까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회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앞서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회원증강은 1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회원유지에 최대 중점을 두기로 정하였다.

우선 표어를 “기쁘고 흥겨운 주회, 즐겁게 봉사하자”로 정하고 주회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기 위해 우선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 들어오는 순간 10명의 사찰 팀들이 사찰 띠를 두르고 회원들을 정중하고도 반갑게 인사하며 맞이한다. 회원들이 친근하고도 대접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다. 홀 안에 들어오면 스크린에 아름다운 영상화면

과 음악이 흘러나오고 음악과 함께 티와 다과를 들며 답소를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한성은 <사랑방>이라는 타이틀 아래 주회 30분전 12시부터 티타임 시간이 있다. 주회 10분 전에는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시작되고 자리를 정돈한다. 주회가 시작되면 생일 축하 순서 뒤에 매주 한성의 예술인들이 번갈아 가며 10분 정도 공연을 펼쳐 주회의 딱딱한 분위기를 음악과 예술로 순화시키고 있다.





이런 일들은 다른 클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30여명의 다양한 예술인을 보유하고 있는 한성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살려 매주 문화주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찬 주회만 해 오던 것을 야간주회, 야외주회도 기획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원들 간에 허심탄회한 우정과 친목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클럽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봉사활동과 장학금 지원 사업이다. 일 년에 분기별로 두 번씩 관명장학금과 한성장학금을 장학위원회에서 선별한 학생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한다.

그것은 로타리의 창시자 폴 해리스의 정신과 부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류애의 실천이기도 하다.

또한 작년부터 매달 안국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나가 배식과 설거지봉사를 하고 있다. 2,000여명의 노인들을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식사를 제공하는 일에 우리 회원들이 번갈아 가며 봉사를 하고 매달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한성예술단과 함께 문화 봉사도 계획하고 있다. 공연을 준비하여 일 년에 세 번 정도 어르신들 앞에서 음악과 춤을 공연하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예술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하고 감동의 시간을 드리려 한다. 작년에 한번 추석 즈음하여 “이웃사랑 음악회”를 기획하여 공연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 이번에는 좀 더 풍성하고 알차게 기획하고 정성을 다하는 프로그램으로 잠시나마 소외감을 잊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그 외에도 용인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청가원”을 30여년 후원했고, 올해는 포천에 있는 장애인 목사님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시설 “나눔의 집”에도 매달 후원하고 있다.

한성로타리클럽은 예술과 함께 봉사하는 멋진 클럽이다. 이런 아름다운 클럽에서 향기 나는 봉사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로타리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클럽활동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Family Together 회원 증강 전략

新로타리안 - 개인회원 중심에서 Family 참여 모델

한국로타리 90년, 종주 3650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토대 위에 3세대가 지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발전을 위해 적절히 변화된 지속가능한 조직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新로타리안 시대'의 로타리 클럽은 이제 기존 회원을 근간으로 하여 배우자, 형제 그리고 자녀가 참여하는 그리고 여성과 40대 미만 젊은 회원의 비중을 높이는 클럽으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3650지구 2017-18년도 기본전략 : 「Family Together」

- 1) '나홀로 로타리안' → '가족과 함께 하는 로타리안'
- 2) '新로타리안 시대'로 전환 - 지구 내 리더 그룹의 헌신적 열정과 적극적인 지지 및 참여 필요.
- 3) 회원증강은 로타리 봉사를 위한 기본조건 - 배우자, 형제, 자녀를 회원으로 영입하여 여성회원 및 젊은 회원들이 증강된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클럽으로 발전되는 일석 삼조의 효과
- 4) 가족과 같은 회원 영입: - 대학 동문, 고교 동문/ 대학원 과정 동문/ 직장/군, 동호회 회원 등

Family Together 회원 증강 방안

1) 신생 클럽 창립

- 신생 클럽 창립 절차에 따라 창립(스폰서 클럽, 총재특별대표 지명)
- 창립 보조금 지원

2) 가족 회원(배우자, 형제, 자녀) 영입

- 정회원으로 입회시 지구회비 감면 혜택
- ※ 기존회원 지구회비 13만원 - 가족 회원 영입시, 지구회비 5만원

3) 위성클럽 결성

- 클럽 내 부인회/ 30세 이상 자녀 위성 클럽화 추진
- 스폰서 클럽과 별도의 모임 개최 권장
- 최소 1달에 1번 모임 개최 권장
- 스폰서 클럽 봉사활동, 송년모임, 지구행사 등에 참여
- 위성클럽은 최소 8명 이상 결성 가능
- 기존 로타리 클럽 회원과 동등한 자격의 로타리 회원 대우
- 위성클럽 지구회비 적용 (5만원)

4) 회원 자녀의 타클럽 입회 추천

5) 대학동문 / 고교 동문 / 대학원 동문 / 동호회 회원 등 기존 친목 모임을 기반으로 하는 로타리클럽 창립 적극 권장

☆ 3650지구 「Family Together」
가족 회원(배우자, 형제, 자녀)의
연간 의무 납부회비

지구회비	50,000원
국제로타리회비	\$30 (연 2회 납부 / 총 60달러) = 1,120원 기준 약 7만원
규정심의회비	\$1.5 (연 1회 납부) 2,000원
로타리코리아 구독료	14,000원 부부회원의 경우 면제 가능(1가구 1구독)
한국로타리회비	5,000원
합계	연간 약 140,000원